

서남권

●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3.6% 상승

- 전년동월대비 +3.6% = 소매업의 기여도 -4.4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8.0%p
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※관련실명정보부록의 기여도참조

●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6.1% 감소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29.1% 상승

- 서남권 소매업은 가전제품·정보통신(-23.7%)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음식료품(8월 1.0% ⇨ 9월 -21.4%), 종합소매(8월 2.1% ⇨ 9월 -9.4%), 의복·섬유·신발(8월 9.5% ⇨ 9월 -6.8%) 등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문화·오락·여가(8월 -23.3% ⇨ 9월 -20.5%), 기타가정용품(8월 -12.5% ⇨ 9월 -7.6%), 연료(8월 -23.3% ⇨ 9월 -20.5%) 등이 감소폭이 축소하고 무점포소매(6.0%)가 증가세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감소세 전환

· 9월 서남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
· 반면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음식료품, 연료, 문화·오락·여가, 종합소매, 기타가정용품, 의복·섬유·신발, 기타상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
- 서남권은 전년동월 부진을 지속하였던 주점·커피전문점(74.4%), 숙박(36.9%), 음식점(19.1%) 등 세부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유지하여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증가하였으나 (전월보다) 오름폭은 감소

· 9월 서남권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, 숙박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.

I 서남권 소비경기지수



I 서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I 서남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